

## 民主福祉 국가의 건설 (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어려움과 내외정세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국가적이고國民적인意志를 모아 극복해야 할 줄 압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 할 방향과 지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한마디로 民主福祉國家의 建設이 새 時代의 國家指標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民主福祉國家 建設이란 말이 약간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나 우리의 새 時代가 이룩해야 할 方向은 그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民主政治를 이땅에 土着化하자는 것입니다.

● 民主主義는 人類의 普遍的 가치입니다. 그 가치의 구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지요.

● 그러나, 그 價値의 具現방법이 時空을 초월해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基督教가 文化的 배경을 이루고 있고 연면한 民主政治의 전통을 가진 西歐社會와 그와는 전혀 다른 文化傳統을 가진 東洋社會에서 同一한 내용의 民主政治가 성숙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西歐社會에서 성숙된 民主政治를 그대로 東洋社會에 移植시켰을 때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 이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모방된 民主政治는 그 社會가 요구하는 진정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無力하기 짝이 없고 社會的 혼란과 貧困, 그리고 停滯만을 自招하고 말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時代에서는 우리의 政治風土에 뿌리내릴 民主政治를 創造하고 開花시켜 나아가 하겠습니다.

● 비록 西歐社會에서라 할지라도 自己만이 民主主義者이고 自己의 主張만이 옳다는 絶對論理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도 우리 社會에서는 왕왕 제대로 民主主義를 소화시키지도 못한 극단적 民主論者나 敎條主義者들이 西歐式政治만이 絶對眞理라고 고집함으로써 民主政治의 土着化를 저해해 왔습니다.

● 비단 政治뿐만 아니라 文化일반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조건 西歐것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濾過해서 受容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排他的 의미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民族自尊의 의지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 그리고, 民主主義를 土着化하려는 우리의 民族意志는 共產主義를 克服하는 民族統一에로 이어져야 합니다.

● 分斷 35年間 北韓共產集團에 의해 民族異質化가 더욱 深化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同族相殘의 戰爭을 막아야 하고 그러면서 民主的 統一韓國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의 民族意志는 끈질긴 忍耐 속에서 平和的인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自由롭고 번영되고 平和로운 統一祖國을 이룩해야겠습니다.

● 두번째, 우리는 본격적인 福祉施策을 펴 진정한 福祉國家를 건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 80年代에 들어와서도 自主國防·自立經濟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持續的 成長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量的인 成長의 그늘에 國民生活의 質的인 向上이 언제까지나 밀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醫療保險의 全面실시·老後扶養·失業保險등 본격적인 福祉施策이 80年代에는 시행되어야겠습니다.

●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福祉社會에서는 개발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成長의 열매가 일부층에 偏在하고 상당수의 국민이 成長의 그늘 속에 放置될 때 국민간의 一體感은 조성될 수 없으며 그러한 社會는 社會福祉가 구현된 진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南北이 對峙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体制의 優越性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開闢 惠澤을 고루 누려 相互信賴가 생기고 계층간에 違和感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國民統合의 社會를 이룩해야 합니다.

● 그래야만 北은 우리 体制의 虛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福祉社會의 실현은 安保的인 次元에서도 반

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正義社會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正義社會란 한마디로 정당한 노력에 대해 正當한 代價가 치러지는 그런 社會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正直하고 誠實하며 勤勉한 사람이 社會로부터 尊敬받고 대우받는 그런 社會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正義가 不義에 의해 쫓기고, 正直하고 誠實한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런 社會에서는 民族의 生氣와 國家의 發展이 기대될 수 없습니다.

우리 社會는 그동안 物量的인 成長에 휩쓸린 나머지 우리 固有의 美風良俗이나 道德의 尊嚴性이 褪色하고 物質爲主의 價值觀이 팽배하는가 하면 그 그늘 속에서 不正과 不義와 부패와 不信이 싹트고 深化되어 갔습니다.

이런 不正·不義·부패를 追放하지 않고는 80年代에 있어 올바른 民族正氣를 고양하고 統一에의 意志를 구체화할 수 없으며 真正한 福祉社會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社會改革작업도 正義社會를 구현하기 위한 整地作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正義社會의 구현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傳統的인 價值를 되살리고, 새로운 時代에 부응할 수 있는 道德의 倫理基盤을 공고히 다지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民主主義가 土着化되고 高度의 福祉시책이 실시되는 正義社會의 구현은 80年代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요, 方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大統領中心制로 安定과 發展

소상하게 말씀하신 국가지표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정치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정치의 토착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改憲작업에 따라 골격이 잡힐 새로운 정치질서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政治秩序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10·26사태 이후의 여러 現象들이 커다란 敎訓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엘리트층으로 자리가 잡힌 것같이 보이던 官의 紀綱은 무너지고, 社會 各계에 定着된 것으로 여겼던 새마을운동도 停滯狀態에 빠져 버렸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奇蹟의 成長이라고 칭송받던 經濟마저 불과 몇 개월 만에 마이너스 成長으로 까지 후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社會의 모든 機能은 정체되고 활개치는 건 煽動政治人들 뿐이었습니다.

強한 指導力의 凝集이 없이는 이 나라의 모든 기 능이 수십년 後退해 버릴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한 때는 새로운 政治秩序로서 內閣責任制다, 二元執政制다 하는 論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나라의 國民的 統合과 社會安定, 그리고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大統領 中心制가 가장 바람직한 體制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10·26사태 이후의 교훈이 아니라 해도 南北이 死生의 對決을 하고 있는 分斷狀況은 우리가 어떤 政治秩序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北의 好戰的인 集團과 對決해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南쪽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형편인데 오히려 힘을 分散하여 責任의 소재를 모호하게 한다거나 상호 牽制토록 해서 제대로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오늘의 安保상황을 외면하는 處事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議院內閣制는 安定된 바탕 위의 책임정치를 기할 수가 없고, 二元執政制는 權力의 二元化로 자칫 혼란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政治秩序를 택하든간에 가장 절대한 命題는 과거와 같은 政治風土를 다시 再演시키지는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政權慾에 사로잡힌 政派들끼리 政爭만을 일삼고, 그래서 國力을 소모하고 國論을 分裂시키는 作態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選舉 때마다 大衆을 무책임하게 선동하여 國論分裂은 물론 國家의 安定 바탕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사태를 야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撒布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國家經濟에 커다란 주름살을 가져다 주었고, 선거민을 買収하는 不正·墮落選舉가 무수히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政治秩序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政治風土의 再演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선거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 점이 가장 優先的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大統領선거에서도 國論分裂과 타락을 방지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크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선거에서 이같은 政治風土는 正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國民意思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國民意思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選舉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國論分裂등을 방지하기 위해 間選制도 검토되는 모양입니다만, 그 間選制가 종전의 國民會議에서의 선출방식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信任投票 같은 것이어서는 國民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副作用을 封鎖하기 위해서 直選을 피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후보가 自由롭게 경쟁함으로써 國民意思가 제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게 하는 制度의 裝置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國會構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종전처럼 職業政治人들이 橫行하는 政治秩序는 止揚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國會議員이 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院內에 들어와서는 그 자금을 回收하고, 새로운 政治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갖은 非理를 일삼는 政治風土가 지속되어서는 國民을 위한 올바른 政治가 이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職業政治人이 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철저한 公營選舉를 통해 선출된 議員들이 國民意思를 제대로 濾過하고 國政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過渡期的 상황은 빨리 克服해야

새로운 時代를 맞아 과거의 전통이나 非理를 반성하고 새 정치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10월말 改憲案 국민투표, 내년 봄 선거, 6月 이전 새 정부수립이라는 정치일정을 발표하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내외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종래의 정치일정에는 변동이 없는지요.

이미 大統領閣下에서 밝힌 政治日程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政治日程은 狀況의 展開에 따라 오히려 앞

당겨질 수도 있는 문제지요.

지금 國保委가 추진하고 있는 社會淨化작업이 國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어 社會의 安定基盤이 빨리 造成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政治日程을 빨리 추진하는 데 고무적인 일이지요.

사실 國家安保나 經濟發展이나 여타 모든 점을 위해서도 過渡期的 상황은 빨리 克服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 새 時代의 새 氣風 정착

10·26사태 이후 한때 國家의 중추가 무너져 社會가 혼돈되고 安保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國保委가 발족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時代를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國保委의 활동 방향과 발족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10·26사태 이후 國家權力의 中樞가 무너지자 國家는 침몰의 위기에까지 다다랐습니다.

治安秩序는 문란해지고 經濟는 停滯狀態에 빠졌으며, 國家가 기능이 痲痺狀態에 놓이게 되었고 급기야는 國基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판을 치는 것은 선동 정치인들의 口號와 이에 附和雷同한 학생들의 소요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國保委는 救國의 信念으로 발족되었으며, 지난 2개월간 그같은 信念에서 과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흐트러진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社會 도처에 뿌리박힌 非理와 腐敗를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國保委가 활동한 이후 社會는 급속히 安定을 되찾아 왔으며, 積滯되어 온 非理도 씻어지고 있습니다.

公務員肅正작업을 필두로 各界가 自律的으로 淨化작업을 전개하고 있어 새 時代의 기풍이 社會 각층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國保委는 앞으로도 社會改革의 意志로 課業을 계속 수행해서 새 時代의 새 氣風을 정착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正義를 俱現하여 밝은 社會 이룩하자